방화나 실화나

향일암 화재 원인 초미의 관심

국과수 현장 정밀감식 빠르면 오늘 잠정 결론

인근 주민 탐문 … 4월 불상훼손 등 정황 '주목'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지난 20일 발생한 향일암 화재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인지, 실화(失火)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경찰은 "불이 날 만한 요인이 없었다"는 암자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건 당일 향일암이 24시간 개방돼 있었다는 점 등에서 방화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이틀째 실시된 현장 감식에서 이렇다할 증거를 찾지 못한 만큼 방화나 실화, 누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초 발화지점 규명이 관건**=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요원들은 21일 향일암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감식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화재로 인해 주저앉은 대웅전 등에서 화재 잔재물을 걷어내고 지면의 훼손도 등을 분석해 최초 발화지점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구체적인 발화 지점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불이 최초로 목격된 대웅전은 물론, 종각과 종무실 등도 화재로 전소돼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는 데는 보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 고재무 박사는 "정확한 화인 규명을 위해 22일부터는 대웅전 바닥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22일 2차 정밀 감식을 벌인 뒤 이르면 이날 중으로 화재 원인에 대해 잠정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탐문조사 등 화인 규명에 총력**=경찰은 방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화재 당시 암자에 있던 스님 등 26명에 대한 행적조사와 함께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인 19일 밤 9시께 기도를 마치고 촛불과 전등을 모두 껐다. 또 밤 11시께 추가 점검 때도 특이점은 없었다"는 암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올 봄에 있었던 화재점검 당시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던 데다 지난 4월 발생한 특정 종교 신봉자에 의한 대웅전 불상훼손 등 여러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대웅전이 24시간 개방된 점을 고려해 불이 난 시각 외부인의 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암자 주변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수사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찰은 전날에 이어 화재 발생 전후 향일암과 돌산대교를 오가는 700여대의 차량 이동 모습이 담긴 CC-TV 녹화테이프를 확보하고 방화 전과자 등의 통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암자 관계자를 상대로 화재 전후 암자에 화재를 예고하는 등의 전화가 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실화, 누전 등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향일암은 지난 20일 새벽 0시 24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대웅전(51㎡), 종무실(27㎡), 종각(16.5㎡) 등 사찰 건물 8동 가운데 3동이 전소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발화지점 정밀감식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1일 여수 향일암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의 발화지점을 찾는 등 화재 원인분석을 위한 정밀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송년·신년모임 불탈법 선거 꼼짝마"

광주지검 '6·2 지방선거 전담수사반' 가동

광주지검(지검장 길태기)은 21일 내년 6월 2일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6·2 지방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검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신년 모임을 틈탄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담수사반은 김영규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선거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일인 내년 12월 2일까지 5단계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전화는 062-224-2045.(야간 062-231-4290).

김영규 부장은 "소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고하, 당락 여부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트럭·승용차 충돌 2명 숨져

21일 오후 3시50분께 여수시 돌산읍 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최모(58)씨가 운전하던 2.5t 마이티 트럭과 황모(55)씨가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최씨와 황씨가 숨지고 유모(53)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향일암 일출제 예정대로 치른다

추진위, 일부 공연 행사만 취소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여수 향일암 일출제 행사가 향일암 화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21일 여수향일암 일출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한태, 이하 추진위)는 "일부 공연 행사만 취소하고 차분하게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20일 화재로 대웅전 등 일부 시설이 전소된 것을 감안해 전야제 행사로 준비한 축하 공연 등 일부행사만 취소하고, 기원제, 영상 홍보물, 먹거리와 숙식 제공 등의 나머지 행사는 계획대로 여수시와 협의해 준비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날 오후 오현섭 여수시장을 면담하고 일출제 행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현섭 시장은 "추진위와 마을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시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안에 향일암이 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전남도, 문화재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관내 문화재, 특히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에 향일암이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 간부공무원들은 평소 십시일반으로 모아둔 상조회비 170만원을 22일 향일암을 방문, 전달키로 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경찰관 기동대 치안센터 배치

시위 없을 땐 민생치안 맡는다

광주·전남 2개 중대 35곳에

시위 진압 부대인 경찰관 기동대가 집회나 시위가 없을 때 치안센터에 배치돼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광주·전남에는 2개 중대가 35곳의 치안센터에 배치된다.

경찰청은 "21일부터 집회나 시위 상황에 투입되지 않는 경찰관 기동대 요원들을 전국 치안센터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치안센터의 24시간 운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찰관 기동대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잦아든 지난 7월부터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된 적이 있지만, 주간 위주로 운영돼 치안공백 논란을 빚어온 치안센터에서 민생치안을 맡기는 처음이다.

전·의경 대신 집회나 시위 진압을 전담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는 현재 36개 중대(약 3천900명)에 이른다.

또 치안센터에 배치되는 중대는 16개(약 1천700명)로 서울 6개, 경기와 부산 각 2개, 광주, 전남, 대구, 인천, 대전, 경남 각 1개이다. 이들이 배치되는 치안센터는 서울 251곳, 부산 71곳, 경기 62곳, 인천 29곳, 광주 19곳, 전남 16곳, 경남 15곳, 대전 10곳, 대구 8곳 등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딸 친구·언니 성추행

광산경찰, 50대 영장

광주광산경찰은 21일 딸의 친구 등을 성추행한 A(51)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5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B(9)양과 그의 언니(14)를 껴안고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이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과자를 달라는 등 귀찮게 해서 떨쳐내려고 밀치는 과정에서 몸을 만졌다. 일부러 했던 게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

"이럴수가" 5만원권 3장이 분쇄기로

쌍나팔

○…한 40대 여성이 농협 자동화 코너에서 인출한 돈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된 '분쇄기'에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발을 동동.

○…2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김모(41)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농협 장흥군지부 현금인출기에서 6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분쇄기에 올려놓았다가 5만원권 3장이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15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

○…김씨는 "현금지급기 옆에 있던 시설물에 무심코 돈을 올려놓았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다. 분쇄기라는 안내 표시도 없었다"며 변상을 요구.

○…이에 대해 농협 측은 "국내 금융기관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분쇄기가 설치돼 있으며, 현 농협 규정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현금훼손은 보상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설명.

/장흥=김용기기자 kykim@